

엔저 지속이 지역산업에 미치는 영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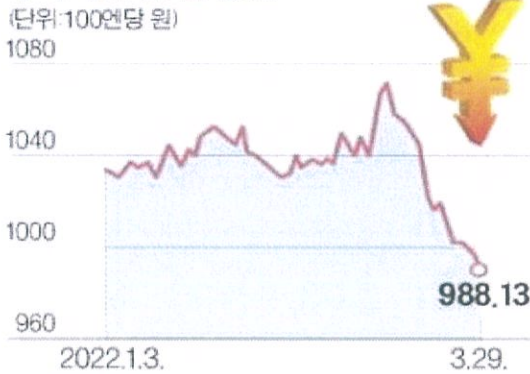
2022. 4.

엔저 지속이 지역산업에 미치는 영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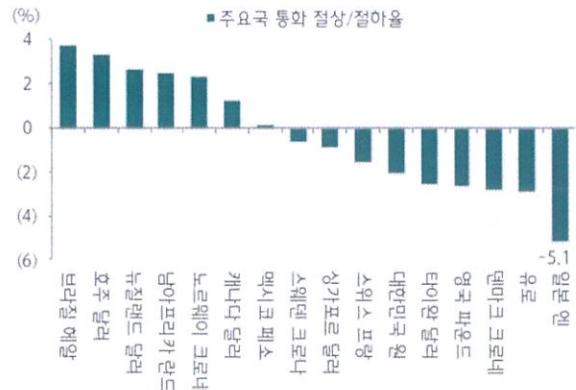
1 엔화 폭락

- 최근 지속적인 엔화 하락 추세로 국제 환율시장에서 달러 대비 엔화 가치는 지난 2016년 이래 최저 수준
 - 미국과의 통화정책 차별화 및 높은 에너지의존도로 인해 엔화 약세 추세 지속
 -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, 반면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자산이 미국으로 이동하면서 엔화 약세 압력 발생
 - 일본은 주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100%에 달하는 에너지 순수입 국가, 유가급등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로 엔화 약세 압력 발생

추락하는 원·엔 환율



[추락하는 원·엔 환율]



[러시아 침공 이전 대비 엔화 5.1% 절하]

- 일본은 저금리 기조를 지속, 엔·달러 추가 하락 우려
 - 일본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(아베노믹스) 실시, 과감한 금융완화와 재정 지출 확대로 엔저 유도→수출 기업 실적 개선과 개인 소득 확대로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실패
 - 일본의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일본정부는 통화완화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추가 하락 우려

2

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

□ 엔저로 인해 국내 일부 산업계는 수혜 가능성

- 원재료, 부품의 일본 의존도가 높은 업종은 엔저에 따른 원가 절감 가능
 - 2016년 이후 한국의 일본수입 비중이 줄어들고는 있지만, 일반기계 등 일부 업종의 핵심부품은 일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원가절감 가능

< 한국의 일본 수입 비중 추이 >

	2016	2017	2018	2019	2020	2021
순위	2위	2위	3위	3위	3위	3위
금액(백만불)	47,462	54,368	54,559	47,473	46,023	54,642
비중(%)	11.7	11.5	10.2	9.5	9.9	8.9

자료: 한국무역협회

□ 엔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일본과 경쟁이 치열한 업종에 영향 확대

- 상위 5대 수출 품목 중 3개 품목이 일본과 동일하여 경쟁 치열

< 동아시아 주요국 상위 5대 품목 >

	한국	일본	중국	대만
1	전기기기	기계	전기기기	전기기기
2	기계	자동차	기계	기계
3	자동차	전기기기	가구	플라스틱
4	플라스틱	정밀기기	플라스틱	정밀기기
5	석유	철강	자동차	자동차

자료: 전국경제인연합회

- 지난 10년간 한국과 일본의 주요 제품 수출 경합도*는 전기기기·기계·자동차 하락, 반도체 분야 상승

- 단, 반도체의 경우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, 일본은 시스템 반도체에 주력하고 있어 상호 보완적이라는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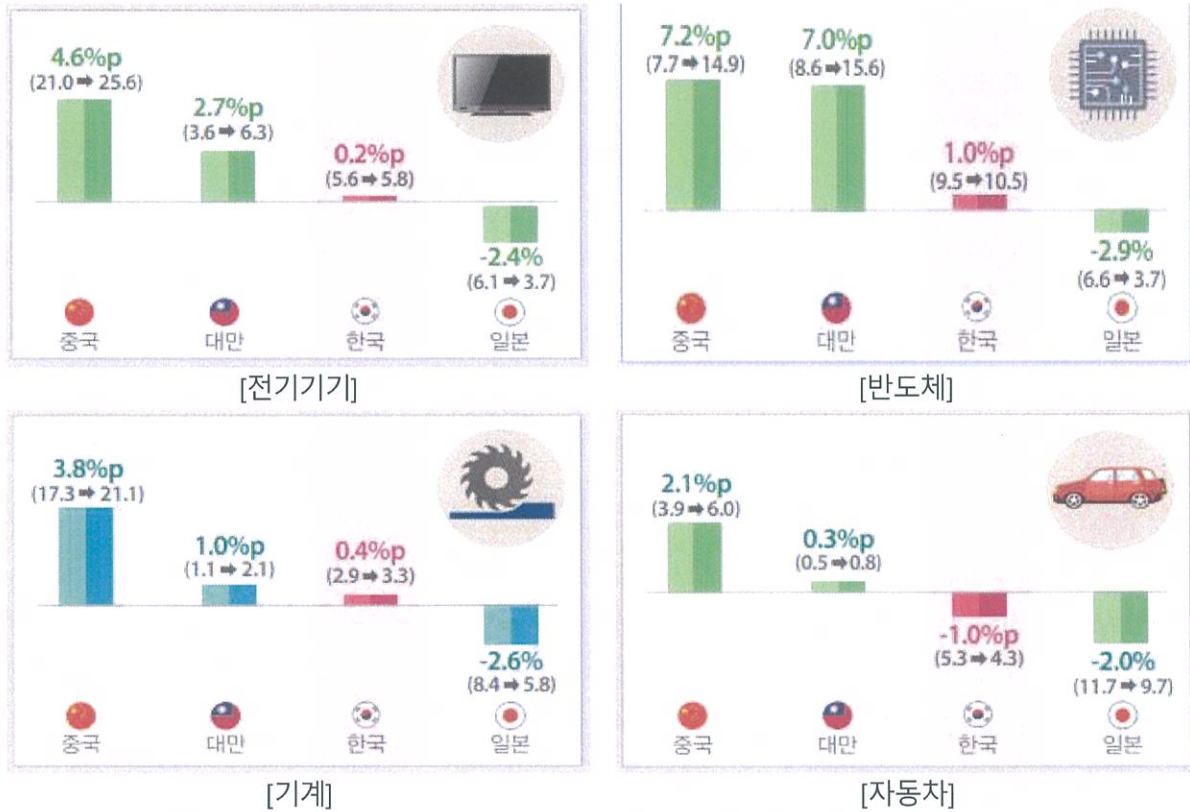
* 수출경합도지수(ESI) : 비교 대상 국가들의 수출품목 구조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보여주는 지수로, 지수값이 증가하면 해당 국가들 간 경쟁이 심화한 것으로 간주

< 한국 vs 일본 수출 경합도지수 >

	2011	2021	변화
전기기기	63.5	57.0	△6.5
기계	65.6	63.4	△2.2
자동차	91.1	90.3	△0.8
반도체	58.3	60.7	2.4

자료: 전국경제인연합회

○ 주요 경쟁품목별 수출 점유율 변화('11년 대비 '20년 수출점유율, %)



□ 자동차, 반도체, 전자산업 관련 기업들은 환율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지속

- 일본 기업과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산업은 일본의 저가공세, 환차익을 앞세운 판촉물량 공세에 고전할 우려
 - 그러나 일본도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아 엔화 약세를 제품 판매 가격에 그대로 반영하기는 어려운 상황
- 국내기업들과 일본기업들 간 수출 경합도가 다소 낮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인 자동차, 반도체, 소재·부품·장비 관련 기업들의 경우 지속적인 환율 변화를 체크

3

구미 수출입 동향

□ 구미 수출입 동향

- (수출) 2021년 구미지역 수출은 245.4억 달러로 전년대비 25.7% 증가하는 등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부터 회복세를 보임

* 구미 수출규모 : '16년 217.4억 달러 → '21년 245.4억 달러

< 구미 수출규모 추이 >

(단위 : 백만달러, %)

	2016	2017	2018	2019	2020	2021
수출금액	21,743	26,267	20,754	18,293	19,529	24,542
증감률	-16.7	20.8	-21.0	-11.9	6.8	25.7

자료: 한국무역협회



- (수입) 구미지역 수입 역시 코로나 발생 이후 감소되었다가 2021년 28.5억 달러로 전년대비 29.4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
* 구미 수출규모 : '16년 27.0억 달러 → '21년 28.5억 달러

< 구미 수입규모 추이 >

(단위 : 백만달러, %)

	2016	2017	2018	2019	2020	2021
수입금액	2,705	2,833	2,788	2,444	2,205	2,853
증감률	-5.1	4.7	-1.6	-12.3	-9.8	29.4

자료: 한국무역협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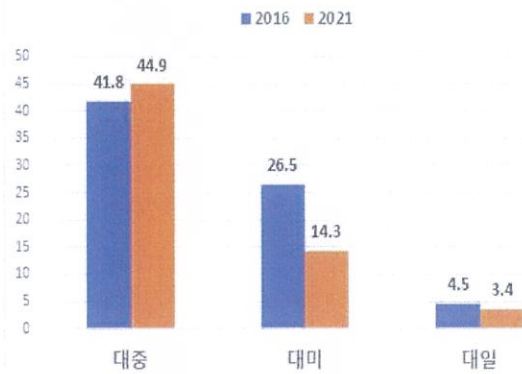
□ 구미 주요 수출입국 동향

- (수출) 구미 수출의 40% 이상은 중국, 2016년 이후 수출 1위 국가로 중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
 - 최근 구미의 수출 국가 순위는 크게 변동이 없으나, 對일본 수출의 경우 '16년 3위에서 '21년 5위로 하락하였고 수출비중 역시 감소
 - * 對일본 수출 비중 : '16년 3위(4.5%) → '21년 5위(3.4%)
 - 특히 2021년 수출비중이 3.4%로 조사시점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그간 오랜기간 엔저현상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음, 현재 구미는 일본에 대한 수출 비중이 낮아 엔화 환율 변화에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 상존

< 구미 수출국가 순위 변화 >

	2016	2017	2018	2019	2020	2021
1위(비중%)	중국(41.8)	중국(39.9)	중국(41.3)	중국(41.5)	중국(44.6)	중국(44.9)
2위(비중%)	미국(26.5)	미국(18.9)	미국(22.7)	미국(21.0)	미국(16.8)	미국(14.3)
3위(비중%)	일본(4.5)	베트남(8.0)	베트남(7.2)	베트남(6.6)	베트남(5.8)	베트남(4.9)
4위(비중%)	인도(4.4)	인도(5.7)	일본(4.8)	일본(5.0)	홍콩(5.0)	홍콩(4.3)
5위(비중%)	브라질(2.9)	일본(3.8)	캐나다(2.6)	대만(2.6)	일본(4.2)	일본(3.4)

자료: 한국무역협회



○ (수입) 구미지역의 최대 수입국은 일본, 2016년 이후 수입 1위 국가를 차지하고 있으나 수입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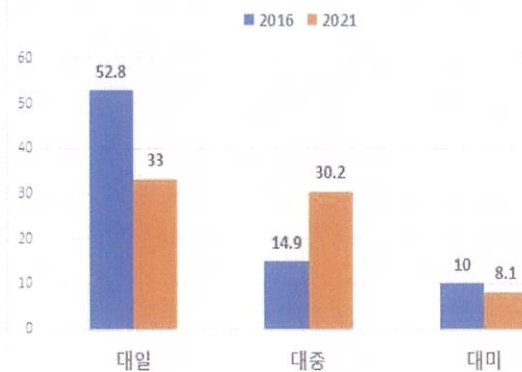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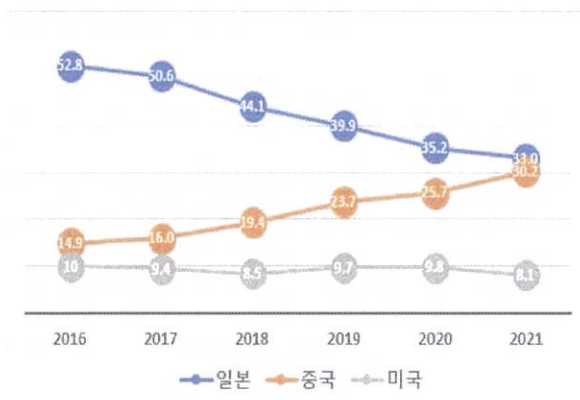
- 최근 구미의 수입 국가 순위는 크게 변동이 없으나(일본 > 중국 > 미국 순), 對일본 수입 비중이 '16년 대비 '21년 크게 감소(△19.8%)

* 對일본 수입 비중 : '16년 1위(52.8%) → '21년 1위(33.0%)

< 구미 수입국가 순위 변화 >

	2016	2017	2018	2019	2020	2021
1위(비중%)	일본(52.8)	일본(50.6)	일본(44.1)	일본(39.9)	일본(35.2)	일본(33.0)
2위(비중%)	중국(14.9)	중국(16.0)	중국(19.4)	중국(23.7)	중국(25.7)	중국(30.2)
3위(비중%)	미국(10.0)	미국(9.4)	미국(8.5)	미국(9.7)	미국(9.8)	미국(8.1)
4위(비중%)	독일(3.5)	독일(4.6)	독일(4.7)	독일(5.2)	독일(8.6)	대만(5.1)
5위(비중%)	프랑스(2.4)	싱가포르(2.6)	싱가포르(4.3)	대만(3.7)	대만(3.7)	독일(4.4)

자료: 한국무역협회



4 구미-일본 교역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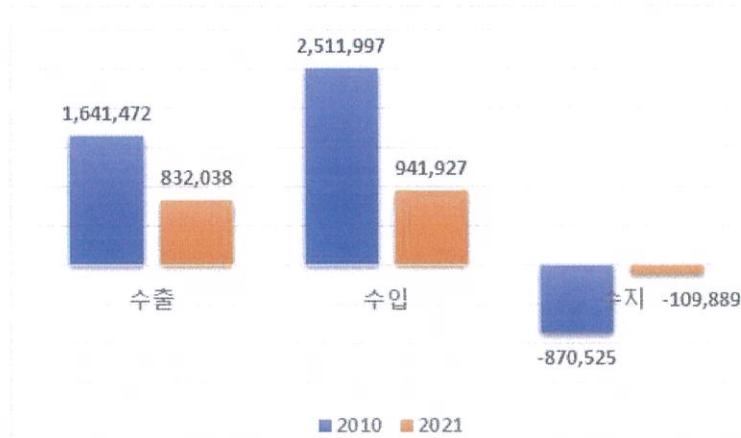
□ 구미-일본 교역 동향

- (비중) '21년 구미의 對일본 수출은 832백 달러로 구미 수출액 기준 5위 (3.4%), 수입은 1위(33.0%) 교역상대국
 - 최근 10년 동안 구미-일본 수출입 순위는 크게 변동이 없으나, 금액과 비중이 크게 감소하여 무역수지 개선
 - * 對일본 수출/수입 금액(백 달러) : '16년 1,641 → '21년 832 / 16년 2,511 → '21년 941

< 구미-일본 교역 현황 비교 > (단위 : 천달러, %)

	2010년			2021년		
	금액	비중	순위	금액	비중	순위
수출	1,641,472	5.6%	3위	832,038	3.4%	5위
수입	2,511,997	52.3%	1위	941,927	33.0%	1위
수지	-870,525		188위	-109,889		193위

자료: 한국무역협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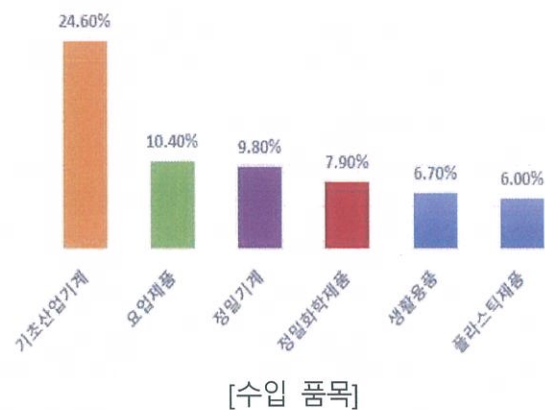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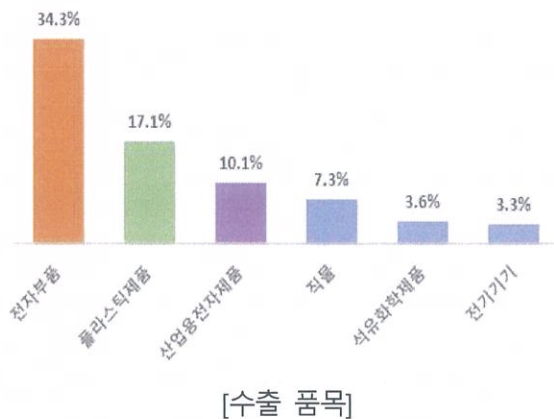
- (수출 품목) 전자부품 및 산업용전자제품(44.3%)이 일본 수출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, 그 외 플라스틱 제품(17.1%)과 직물(7.3%) 등으로 나타남
 - 엔저가 지속될 경우, 지역에서 주로 수출되는 전자부품 및 전자제품 등에 미치는 영향은 커질 것으로 예상, 이들 업종의 주력 수출시장 및 경쟁 품목이 일본과 상당 부분 중첩되고 한·일간 경쟁력 격차도 크지 않은데 기인함

-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,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엔저효과를 상쇄할 여지가 적는데다 경쟁력도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환율변동 대응능력도 떨어짐
- (수입 품목) 기초산업기계 및 정밀기계가 34.4%로 가장 대일 수입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, 다음으로 산업용 유리 등 요업제품(10.4%)과 정밀화학제품(7.9%) 순으로 나타남
- 주요 수입품목인 산업기계 및 정밀기계 등은 수입단가가 인하되어 상쇄효과가 발생, 따라서 엔저의 영향이 미미하거나 제품생산에 있어 원가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

< 2021년 구미 對일본 주요 수출입 품목 > (단위 : 천달러)

품목	수출		품목	수입	
	금액	비중		금액	비중
전자부품	285,380	34.3%	기초산업기계	231,459	24.6%
플라스틱제품	142,211	17.1%	요업제품	97,885	10.4%
산업용전자제품	84,405	10.1%	정밀기계	92,343	9.8%
직물	60,664	7.3%	정밀화학제품	74,526	7.9%
석유화학제품	30,004	3.6%	생활용품	63,279	6.7%
전기기기	27,510	3.3%	플라스틱제품	56,263	6.0%
철강제품	20,611	2.5%	섬유사	54,921	5.8%
섬유원료	20,501	2.5%	산업기계	37,316	4.0%
기타기계류	20,361	2.4%	석유화학제품	35,652	3.8%
농산물	20,038	2.4%	비철금속제품	34,564	3.7%

주: MTI 2단위 기준
자료: 한국무역협회



- 구미 경제는 대일 수출의 주요 업종에서 일본과의 경합도,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엔저의 장기화에 따른 수출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 상존
 - 엔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장·단기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
- 엔저 지속에 대한 대응 방안
 -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환율변동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고 충격발생 시 취약하므로 지역 중소기업의 환위험 관리능력 배양 필요
 - 지자체, 금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기업 CEO, 재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환위험관리에 대한 현장 교육 실시, 종합적인 환율 컨설팅 서비스 기회 확대
 - 단기적으로는 기업내 비효율성 제거, 생산성 향상 등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
 - 지속적인 혁신 주도, 엔저에 따라 수입기자재 가격 하락으로 투자 유리
 - 장기적으로는 품질경쟁력 제고 및 생산성 향상, 수출시장 다변화
 - 수출제품의 품질경쟁력이 높은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수출단가 조정 필요성이 적으므로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필요
 - 지역 기업의 기술 및 디자인 혁신, 원가절감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환율 변동에 대해 신축적으로 대처
 - 수출 변동위험 분산을 위해 구매력이 증대되고 있는 신흥시장국 등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
 - 지자체는 환율 급변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환율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적절한 대책을 시행
 - 수출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, 지방세 납부 유예 등 대책을 신속히 시행